

K리그, 레조의 스타트

작년보다 44.7%↑ ‘관중대박’...적극적 마케팅 주효
2부리그까지 총 11경기 중 무득점 무승부 경기 全無



3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 FC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서울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새 시즌 K리그가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막을 올렸다. 지난 주말 K리그 1라운드 6경기에서는 7만 9355명의 유료 관중이 자리를 빛냈다. 경기당 1만3226명으로 지난해 1라운드의 총 5만4854명(평균 9142명)보다 44.7% 증가한 수치다. 전북과 대구의 공식 개막전이 치러진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2만 1250명이 운집했다. 공식 관중 집계 방식이 유료관중 기준으로 변경된 지난해 이후 전북의 최대 관중이다.

인천과 제주가 맞붙은 인천축구 전용경기장에는 2012년 개장 이래 가장 많은 1만8541명이 입장했다. 울산(1만3262명), 경남(8018명), 상주(5372명), 서울(1만5525명)도 각각 지난 시즌 평균을 훌쩍 넘는 팬들로 들어섰다. 개막전을 통해서 벌인 혜택을 누리 팀들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팬들을 불렀다. 경기 전후와 하프타임에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들로 겨우내 축구에 목말랐던 팬들을

달렸다. K리그2(2부리그)에서도 ‘관중 대박’ 흐름은 이어졌다. 1라운드 5경기 총 유료관중은 1만7196명으로 경기당 평균 3439명으로 조사됐다. 작년 1라운드 총 1만4177명, 경기당 평균 2835명에서 21.3% 늘었다. 응원에 보답하듯 선수들도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K리그 1, 2 11경기 중 무득점 무승부는 한 경기도 없었다. 절반에 가까운 경기에서는 3골 이상이 터졌다. 9일과 10일에는 2라운드가 열린다. 대구는 9일 제주전에서 새로운 경기장인 DGB대구은행파크를 첫 선보인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격돌한 수원과 전북도 맞대결을 하는 등 흥미로운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다. K리그는 아니지만 주중에도 눈길을 끌 경기들이 팬들을 만난다. 경남은 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산둥루닝(중국)을 상대로 클럽 사상 첫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펼친다. 전북은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베이징 귀안(중국)과 대결한다. 베이징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원정팀 일원으로 전주성을 찾는다.

뉴시스

물 오른 김서영, 자유형 200m도 한국新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주자로 떠오른 김서영(25·경북도청)이 시즌 첫 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김서영은 3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9 경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여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58초41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2년 전 이의섭이 수립한 1분58초64의 한국 기록보다 0.23초 빨랐다. 김서영은 시즌 첫 레이스부터 압도적인 기량으로 올해 활약을 예고했다. 주 종목인 개인혼영이 아닌 자유형 한국기록마저 갈아 치우면서 다재다능함을 뽐냈다. 김서영은 지난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08초34로 터치패드를 찍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이 종목 금메



달을 가져온 것은 1982년 뉴델리 대회 최윤희 이후 36년 민이다. 김서영은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입상을 노린다.

뉴시스

배드민턴 혼합복식 서승재 채유정, 두 대회 연속 우승

배드민턴 혼합복식 서승재(원광대)-채유정(삼성전기) 조가 두 대회 연속 패권을 거머쥐었다. 두 선수는 4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19 요넥스 독일오픈 혼합복식 결승에서 하피즈 파이잘-글로리아 엠미뉴엘 위드자저(인도네시아) 조를 세트스코어 2-0(21-17 21-11)으로 꺾었다. 스페인 마스터스에 이은 또 한번의 쾌거다. 세계랭킹 10위인 두 선수는 11위인 인도네시아 조를 맞아 순쉬운 승리를 거뒀다. 적극적인 네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어렵지 않게 점수를 쌓았다. 1세트 15-17에서는 연속 6득점으로 세트를 정리했다. 기세를 몰아 2세트에서는 상대 추격을 11점으로 막았다. 지난해 5월 처음 호흡을 맞춘 서승재-채유정 조는 국가대표팀 간판 혼합복식 조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박성현, HSBC월드챔피언십서 대역전극...통산 6승

호주교포 이민지, 13언더파 275타로 준우승



박성현(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역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성현은 3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뉴 탄종 코스(파 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를 쳐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공동 8위에 머물렀던 박성현은 막판 집중력을 선보이며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해 대역전극을 펼쳤다. 개인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2만5000달러(약 2억5000만원)의 상금도 받았다.

올 시즌에도 한국 선수들의 저력이 돋보였다. 지은희, 양희영에 이어 박성현도 우승을 맛봤다. 올해 5개 대회에서 3승을 합작했다. 박성현은 4라운드 초반부터 버디 행진을 펼쳤다. 1, 2, 3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다. 6, 7번홀에서 버디를 낚아 1위에 올라섰다. 8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잠시 주춤했지만, 후반에 4타를 줄여 역전승을 일궈냈다. 호주교포 이민지는 13언더파 275타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고진영(24)은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효주(24)는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5위, 지은희(33)는 9언더파 279타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박인비(31)는 4언더파 284타를 기록해 14위에 머물렀다. 한편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아리아 쭈타누간(태국)은 3타를 잃어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해 공동 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뉴시스

이경훈, PGA 첫 톱10...“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

공동 2위 사상 첫 우승 도전서 공동 7위로 대회 마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Honda 클래식(총상금 680만달러)에서 데뷔 첫 톱10 진입에 성공한 ‘투키’ 이경훈(28)이 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를 발판 삼아 다음 대회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결들였다. 이경훈은 4일(한국시간) 미국 플

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파 70)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3개를 쳐 1오버파 71타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공동 2위를 달린 이경훈은 사상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티수를 줄이지 못하고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75타다.

이경훈은 “PGA 투어에서 처음 우승권에 있어 욕심도 났다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갔는데 후반에 실수가 나오면서 아쉽게 끝난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경훈과 함께 라운드를 펼친 키스 미첼(미국)이 트로피를 가져갔다. 이경훈은 “진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초반에 그 친구가 더 안 좋았는데, 끝에 가서 점점 버디를 많이 잡았다. 후반에 잘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했다.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막 투에 뛰어든 이경훈은 앞날이 창창한 선수다. 이번 대회를 통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를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찾고 부족한 점도 많이 확인을 했다”는 이경훈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좋은 점은 그 느낌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경훈은 2주 가량 휴식을 취한 뒤 25일 개막하는 발스와 챔피언십에 참가할 계획이다.

뉴시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